



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7타이거뱅크 KBO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 1만7000여명의 관중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루키 대거 투입...KIA 홈 개막전 분위기 일신



신범수·박진태·김지성 합류

이흥구·고효준·이범호 빠져

오늘 선발 '신형 잠수함' 임기영

안방에서 2017시즌을 맞은 '호랑이 군단'이 엔트리 변동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KIA 타이거즈는 4일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치렀다. 안방에서의 새 출발에 앞서 KIA는 엔트리를 대거 교체했다. 분위기 전환 차원과 부상 여파다.

포수 이흥구, 내야수 최병연, 좌완 고효준 등 지난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 시리즈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세 명의 선수가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그리고 지난

31일 개막전 경기 이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던 이범호가 엔트리에서도 제외됐다.

일단 한 자리는 양현종의 몫이 됐다. 양현종은 이날 선발 등판에 맞춰 엔트리에 등록됐다. 또 시범경기에서 때론 타격을 선보였던 '꼬마 포수' 신범수가 생애 첫 1군 엔트리의 영광을 안았다. 투수진에서도 역시 '대졸 루키' 박진태가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합류했다.

방출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이도 있다. LG에서 방출됐던 내야수 김지성이 콜업을 받으면서 새 출발을 알렸다.

특이하게 예상했던 안치훈의 이름은 빠졌다.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안치훈은 도루 도중 옆구리를 다치면서 재활을 해왔었다. 홈 개막전에 맞춰 준비했지만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1군 합류가 불발됐다.

김기태 감독은 "안치훈은 아직 통증이 있다고 한다. 2군에서 경기를 치른 뒤 울릴 예정이다. 조심스럽게 하고 며칠 더 지켜본 뒤 등록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대신 김 감독은 LG 시절 인연이 있는 '전전후 내야수' 김지성을 내야 백업 자원으로 불러들였다.

이흥구와 고효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난 주말 3연전에서 모두 스타팅

으로 나왔던 이흥구에 대해 김 감독은 "캠프 때부터 같이 했는데 스윙 궤도 등이 완벽하지 않다. 재충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말은 안 해도 될 해야 하는 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엔트리 변경으로 분위기를 바꾼 KIA는 5일 사이드암 임기영을 선발로 내세운다.

임기영에게는 KIA 선수로서의 정식 데뷔전이다. 지난 2014년 송은범의 FA 보상 선수로 KIA로 이적했던 그는 곧바로 상무에 입대하면서 지난 2년 팀을 떠나있었다.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전개된 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그는 '경북고 단짝' 김운동과 함께 4·5선발로 2017시즌을 출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4년 이후 첫 등판 박지훈 "나이 먹어서 떨리지도 않네" 정품 홈런 맞은 김운동 "나도 뭐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덕아웃 T 특독

▲선수를 치시네=KIA는 앞선 삼성과의 대결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도 9회 7실점, 1이닝 8실점 등의 아쉬움을 남겼다. 험난했던 3연전을 치르고 돌아온 KIA 김기태 감독은 4일 홈 개막전에 앞서 선수단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던 허영택 단장을 마주했다. 김 감독의 인사는 "지난 3경기 고생 많으셨죠?"였다. 지켜보는 사람 애를 태웠던 경기였던 만큼 속삭여줬던 김 감독이었다. 이에 허 단장은 "선수를 치시네"라면서 깔깔 웃었다.

▲141경기 다 할 거야=의욕 넘치는 최형우다. 최형우는 전정팀과의 지난 3연전에서 지명타자로 자리잡았다. 시범경기 마지막 발목을 다치면서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수비에서 빠진 것이다. 하지만 4일 새로운 안방에서의 첫 경기는 원래 자리인 좌익수 자리에서 시작했다. "이제 발목이 괜찮다"고 이상 없음을 알린 최형우는 나치완과 캐치볼을 하면서 "(남은)141경기 다 할 거야"라고 웃음을 보였다.

▲나이 먹었나 봐요=나이를 먹어서 무덤덤하다는 '에비역' 투수, 박지훈은 지난 1일 삼성전을 통해 2014년 이후 처음 마운드에 올랐다. 오랜만의 등판이라 긴장이 됐을 법도 하지만 박지훈은 "시범경기 때

는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떨리지 않더라"며 웃었다. 첫 등판 성적은 1이닝 2탈삼진.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박지훈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피드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 스피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다 보면 스피드도 올라갈 것이다. 더 긴박한 상황에 나가게 되면 더 재미있게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맞기는 내가 맞았는데=김운동은 지난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화제의 홈런' 조연이 됐다. 김운동을 상대로 홈런을 때린 이는 바로 '국인타자' 이승엽.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이승엽의 홈런에는 경품이 걸려있다. 삼성은 올 시즌 이승엽의 홈런볼을 잡은 홈 관중에게 500만원이 넘는 스위스 명품 시계 IWC를 선물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승엽의 홈런볼을 잡은 30대 회사원이 명품 시계의 첫 주인공이 됐다. "맞기는 내가 맞았는데 나도 뭐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속스럽게 웃은 김운동은 "나중에 경기를 다시 보니 직구가 말려 들어갔다.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다. 홈런을 맞고 나니 긴장감이 풀렸다. 처음부터 그렇게 던졌어야 했는데 아쉽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다음에는 더 침착하게 좋은 피칭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남기일 감독 시구 "떨렸지만 의미 있는 시간"



시구하고 있는 광주 FC 남기일 감독.

2017시즌 챔피언스필드의 첫 시구자는 프로축구 광주의 FC 남기일 감독이었다.

광주 남기일 감독이 4일 KIA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이 열린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남 감독은 야구 모자와 V11을 기원하는 의미의 11번 유니폼 차림으로 마운드에 올라 홈 개막을 알리는 시구를 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두 프로 스포츠단이 한데 어

우러진 순간이었다.

"익숙한 경기장에 온 느낌이다"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실내연습장에서 연습을 했던 남 감독은 시구가 끝난 뒤에는 상기된 표정으로 "생각보다 많이 떨리더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출신의 남 감독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KIA 구단과 운장현 광주시장님께 감사하다. 우리팀과 나에게는 영광스런

자리였다. 광주 FC를 알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며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봤고 응원했던 팀이다. 지금도 응원을 하고 있고, 같이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에 프로 스포츠단이 두 개밖에 없는데 상생하면서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김기태 감독님도 시속하러 오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리그 개막...추신수 1안타, 김현수 무안타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7시즌 개막전에서 안타를 때려내며 재기를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무안타에 그쳤으나 홈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달라진 위상을 확인했다.

추신수는 4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2017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클리블랜드의 선발 코리 클루버를 상대로 1회말 1루 땅볼, 3회말 우익수 뜬공, 5회말 서서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팀이 5-4, 1점 차로 앞선 7회말 2

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클리블랜드의 3번째 투수인 좌완 본 로건을 상대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깨끗한 안타를 때려내 1루에 안착했다.

텍사스는 클리블랜드의 새로운 거포 에드윈 엔카나시온에게 8회초 동점 솔로 홈런을 허용한 데 이어 9회초 볼펜이 무너지며 5-8 역전패했다.

기대를 모았던 양 팀 선발 맞대결에서는 텍사스의 다르빗슈 유가 6.1이닝 4피안타(1피홈런) 5볼넷 4실점(4자책), 클리블랜드의 클루버가 6이닝 6피안타(3피홈런) 3볼넷 5실점(5자책)으로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수는 이날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 7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세 번의 타석에서 모두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8회초 수비 때 조이 리카도와 교체됐다. 볼티모어는 연장 접전 끝에 11회말에 타진 마크 트롬보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하며 개막전 7연승을 질주했다.

김현수는 비록 안타는 없었으나 개막전 식전 행사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다. 의미 있는 반전이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 2장을 획득한 한국 피겨의 자존심 최다빈이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최다빈은 1일(한국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피겨선수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종합 10위에 올라 10위까지 주어지는 평창올림픽 출전권 2장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서 복귀전

8일 콜로라도전 선발 등판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2017년 미국프로야구 정규리그 첫 선발 등판이 8일(한국시간)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로 확정됐다.

다저스 구단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구단이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양 팀의 정규리그 개막전 직전 취재진에 배포한 게임 노트에 따르면, 다저스는 파드리스와의 4연전에 클레이턴 커쇼, 마에다 겐타, 리치 힐, 브랜던 매카시 순서로 선발 투수를 내보낸다.

이는 좌투수-우투수 지그재그 형태로 선발전을 짠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구상과 일치한다. 게임노트는 팀과 개인

선수의 자료 등을 담은 보도 참고 자료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다음 상대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로 스타트를 끊을 전망이다. 류현진은 8일 오전 5시 10분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 타선과 대결한다.

콜로라도 구단은 류현진과 선발로 맞붙을 투수로 새내기 좌완 카일 프리랜드를

예고했다. 프리랜드는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17승 12패, 평균자책점 3.49를 남기고 이날 빅리그에 데뷔한다.

2015년 왼쪽 어깨, 지난해 왼쪽 팔꿈치를 수술한 류현진은 오랜 재활을 거쳐 시범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시즌을 준비해왔다.

류현진은 4번의 시범경기 등판에서 14이닝 4점을 취 평균자책점 2.57로 준수한 성적을 내고 선발진의 한 자리를 예약했다. 2일에는 타자를 세워두고 던지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3이닝을 소화하고 정규리그 등판 준비를 마쳤다. /연합뉴스